

# “교육감 직선제 유지하되 보완해야”

### 광주시의회 ‘지방교육자치 과제’ 정책토론회

## “교육위원회 독립 의결기관 전환을”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은 시기상조로,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되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유지와 교육위원회의 독립기구화도 제기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예결위 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자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64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희곤 광주시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성병창 부산교육대 교수가 주제발제를 했다.

성 교수는 “교육선거와 정치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서 교육자치의 본질이 훼손됐고, 교육위원회가 집행기관(교육청)에 대응하는 의결기관이 아닌 정치에 예속됐다”면서 “교육감 자격을 정당인으로 넓히는 것은 시기상조로, 현행과 같이 일정의 교육경력을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위원회를 완전한 독립형 의결기관인 지방교육의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만 법률적 제한으로 어렵다면 준독립적 교육상임위의 구성을 생각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김동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교육감 직선제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교육의 정치 예측화 폐단이 있다”며 “학부모와 교직원, 교육기관 종사자 등 교육 관계자가 선출하는 제한적 직선제로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장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러닝메이트 방식은 지자체장의 정치적·행정적 목적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받고 종속될 우려가 높다”며 “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유지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 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광주시의회는 14일 예결위 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자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64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관련 단체가 위기감을 느끼고 지방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희곤 광주시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지방교육자치법 개

정에 대비해 전국의 교육 관련 단체가 처음으로 모여 의견을 나눈 자리”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단체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승원 칼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 중에 미국의 상원·하원 의원들이 합동으로 모인 자리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다.

사실은 미국어로 연설을 한 것일 터이다. 모든 의원들은 열렬히 40차례나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다.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과 신문들은 전했다.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이 얼마나 유창한 미국식 영어를 잘 구사하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감동적이었으면 그들이 그렇게 많은 박수를 보냈을까.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잘했다고 말해줄 수 없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 한복판이 찢어진 듯 시리다. 우리들의 모국어란 무엇이고 영어란 무엇인가.

엄연한 독자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모국어를 잊혀놓고 방문당사국의 말로써 연설을 한다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설사 아무리 그 당사국의 말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을지라도 그 나라 말로 연설을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총리이던 김종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시대인 지금 우리의 국제적인 기업인들과 외국 바이어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인들은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야 한다. 우리 물건을 바이어들에게 아무런 손색없이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원활한 통상을 위해서는 언어적인 소통에 전혀 불편이 없어야 한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외국인들과 무리 없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는 외국에 팔러나가 뛰는 운동선수들도, 외국에 작품을 수출하는 예술인들도, 이른바 한류를 위해서도 영어를 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과연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합석해 있는 자리에서 유창한 미국어로 연설을 했다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인가. 세계 2차대전 종식과 더불어 일제 식민지 상태에서 거저 얻은 독립과 남침해 오는 북한군을 몰아내는 6·25전쟁을 거쳐 오늘날의 대한민국

##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어 연설

은 일본에 가서 모국어로 연설을 하다가 중간에 통역을 끼쳐버리고 스스로 유창한 일본어로 연설을 함으로써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 국내 신문들은 논설이나 가십 기사 몇 줄씩으로 그 행위를 비판했다. 독립국가의 총리가 36년의 식민지 통치를 받은 바 있는 일본에 가서 유창한 일본어로 연설을 할 수 있는지는 것이었다. 국가의 체면과 민족의 자존을 내팽개쳤다는 투의 비판이었다고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흐른 지금, 이 나라는 미국에서 유행되는 미국식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세상이 되었다. 카이스트라는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미국어로 강의를 한다. 어떤 외국인이 수장으로 있는 회사를 비롯한 몇몇 글로벌 회사에서는 참모회의를 영어로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장이 미국에 가서는 ‘오렌지’라고 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어린쥐’라고 발음해야 알아먹는다, 원어민의 미국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했다가 빈축을 산 적이 있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여기저기에 원어민 강사들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미국식 영어마을이 만들어졌다. 나는 지금 그것들이 모두 반드시 온당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이 있기까지 미국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지대하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정전 상황인 지금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은 철통 같다. 그것은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한·미·일의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세계와 동북아의 힘의 구조상,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신박임 수밖에 없을 터이다.

그런데 한미 군사 합동훈련으로 인해 북한과의 전쟁 직전까지 치달을 정도의 극한 대립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 개성공단 직원들의 전원철수라는 수를 두어 놓은 차체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유창한 미국어로 연설을 한 것은 과연 합당한 일인가. 우리 대통령은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모국어를 잊혀놓고 영어로 연설을 한 것인가. 한미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것인가.

미국 상하원의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어 연설에 왜 그렇게 열화와 같은 박수를 쳤을까. 그 박수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들은 대한민국을 동북아에 자리하고 있는 미국의 한 연방주로 생각한 것은 아닌가. 나는 부끄럽다. 서울과 광주, 부산 그 어느 방송 그 어느 한 신문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이상스럽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유창한 영어 연설을 탄하는 내가 한심한 사람인가. <소설가>

# “朴대통령 광주·전남 공약 꼭 챙기겠다”

### 유수택 신임 새누리당 최고위원 인터뷰

유수택 신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광주·전남지역 각 7개 공약사업이 임기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명된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유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전남지역 여론을 당 지도부와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낼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건설 등의 광주지역 7대 공약과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의 전남 7대 공약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현안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직 최고위원이 된 것에 대해 지역 분들의 기대가 크고,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 선출 등 당직 개편이 이뤄지고 있어 새로운 지도부 내에서도 호남의 목소리를 내는 데 총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임기 중 호남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방을 만들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개인 사무실을 낼 것”이라며 “특히 35년간의 공직 경력이 있는 만큼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시·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호남 인사 소외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 시절 내무부(현재 안전행정부)의 경우 고건, 전석훈, 송인종 선배 등 호남 인맥이 전통적으로 센 곳이었으며, 호남과 영남이 공존했었는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한 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의 지역출신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인맥 구조 등을 살펴보고, 이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최고위원은 영암 출신으로 광주교과교육연구원을 졸업한 뒤 ▲여천·순천시장 ▲내무부 민방위국장 ▲행정부 공보관 ▲광주시 행정부시장 ▲전남개발공사 사장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순천시 박람회 입장료 학생지원, 선거법위반 조사 최상준 남화토건 대표, 통일기금 1억 기탁

### 전남도선관위

순천시가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입장료와 교통비 등의 지원 명목으로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4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순천시가 지난달 학생들의 정원박람회 입장료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금 명목으로 79개 초·중·고교에 2억1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과 관련,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순천시는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 공모 방식을 통해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기초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2~3일내 선거법 위반 여부가 최종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최상준(75·사진) 남화토건 대표가 14일 통일기금 모금을 벌이는 민간단체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통일생각)에 1억원의 기탁했다고 통일생각이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이기도 한 최 대표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기부를 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해 7월 통일생각의 기금 모금이 시작된 이래 1억원의 가장 큰 기부액으로, 총 모금액은 7억원에 넘겼다.

최 대표는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에 도서

## 삼희공인중개사

### 모든부동산 급매매

### 급매처분상담

### 경매 공매 압류 미준공건물

###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234-1199 /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 신한공인중개사

### 신축원룸매매전문

- ★전대정문 1분 룠 147개 월수익 500만원 매가16억9천
- ★전대상대, 농대 1분 룠 147개(상가1개)월수익 500 매가15억9천
- ★전대정문1분 룠 21개(주택전환가능) 월수익 750만 매가8억4천만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보5천 용2억5)
- ★전대정문 1분 룠21개주택전환가능, 엘리베이터, 전 면대리석, 벽돌시공) 월수익 750 매가18억8천(보5천 용2억5천)
- ★쌍촌동 신축원룸 137개 월수익 500만 매가5억9천
- ★쌍촌동 원룸 167개 월수익 600만 매가16억9천

### 쌍촌동 역세권 토지매매

운천역 1분 코너 상업지 광동간도로점 820㎡ 매가26억(병원·전시장·도시형)

### 수완지구 상가분양 임대전문

1층~7층 까지(695㎡) 학교·병원·독서실·모든업종가능 수완지구 1층 분양 59㎡ 매가13억6천(보3천 월140만) 수완지구 3층 분양 임대 280㎡ 매가13억3천(보3천 월180)

### 독서실 급 임대

수완지구 3천세대 모아엘가 APT후문 2층 91석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종금 5천만 월250 시비약간있음

062)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국민은행 LG전자빌)

## 현대공인중개사

### 급한 매물 단시일 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 <토지매매>

- 소 재 지 : 광산구 산정동
- 면 적 :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지 목 : 잡종지
- 입지조건 : 대형차량진입 가능
- 허용용도 : 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차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 : 면적(분할가능) 및 가격은 상담 후 결정

### <신축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 상무지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권장 용도 : 학원, 병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 부동산 성공 투자

###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 상가건물
  - ▷첨단 중심상권 2층건물 매매 18억(보1.5억 910만 수익)
  - ▷월산동 일반상업지구 6층건물 매 14.7억
  - ▷포항동 아파트 2층상가 124㎡(38평) 매매 2.4억

- 대지/전답
  - ▷담양군 금성면 토지 5,500㎡(1.670평) 개발허가,기반 시설 완비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 ▷신창동 창고용지(생산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수완지구 원룸부지 323㎡(98평)

- 수익형 구분점포
  -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 ▷첨단 중심대로변 복층 점포 1.2층 점포 400㎡, 710㎡ 임대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10억 월 1,200만
  - ▷첨단 메인상권 1층 구분상가 370㎡ 매매 35억(임대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드립니다. ◎광주 전남전 매대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73-0045 010-5536-0382

##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구 (7층) 보5억4천,월3500만 매46억9천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구(5층) 보3억, 월2500만원 매39억9천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구(3층) 보3억9천, 월1200만원 매23억9천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구(5층) 보5억, 월4100만원 매80억9천
- 광산구 수완지구(5층) 보2억9천, 월1390만 매27억9천
- 광산구 신창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9천

###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로점 자연녹지 3,400㎡ 매31억9천 (병원,시육,장례예식장)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구 960㎡ 매 36억9천(병원,시육)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구408㎡ 매 8억5천(식당,유호도래방)
- 치평동 광동간도로 395㎡ 매14억9천(병원,시육,전시장)
- 마복동생산녹지 도로점 895㎡ 매가11억9천(식당,시육)
- 쌍촌동 운전역부근 상업지 845㎡ 매가25억 (시육,전시장,병원,도시형)
- 세종시 중심상업지구 1715㎡ 매가62억9천 상가분양투자용지
- 상가건물, 내다지 급구

062-381-6001 010-3753-0033

## 원룸 교환

### 두암동4층 원룸

### 대지 324㎡ 건물 482㎡

### 14세대 매매가 5억1000만원 내·외부리모델링 용지없음

### 보종금 2억5100만원 월세160만원 월세전환시

### 보종금5600만원에 월세 455만원 가능

### 커피전문점 또는 타점포와교환가능

062-267-2006